

양돈인의 긍지와 목표

류인경
(열림축산(주))

연초에 보기도문 흰눈이 많이 내렸다. 설경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마음이 인자하신 어머니젓가슴에 안기는 환상에 젖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나의 손길, 눈길 하나 하나가 정성으로 가꾸어져 가는 동안에 흔히 다른 농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농장만의 자랑이라고 할만큼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행동지침은 모든 양돈인에게 긍지를 심어 주고 장래의 설계를 위한 이정표가 될수있다고 사료되어 감히 이 글을 씁니다. <필자 주>

1. 양돈인으로서의 근무에 대한 긍지와 양돈전문가로 입신(立身)의 꿈을 갖는다.

전문적 양돈인상은 매사를 적당히 한다든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투기 또는 한탕주의 사고의식으로서 는 자격이 없다. 고통과 피로움을 몸소 겪는 희생정신의 소유자라야 한다.

양돈인후보로 선택된자 됨을 자각하고 피나는 연구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여 선진 양돈국으로 성장시킬 책임자명(命)을 받았음을 자각하자. 대부분 사람들은 양돈생활이 돈분과 오물속에서 살아가기때문에 기피현상이지만 우리 양

돈인은 꿈과 희망이 있기에 악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이 험한 길은 패배자들의 길이 아니고 찬란한 빛을 찾는 용기 있는 자들의 길이다.

우리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에 임하면서 선진국들의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양질의 돈육을 값싼 가격으로 대량공급 체제를 만들어 돈육가격을 안정시키고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돈전문가로서 입신의 꿈을 갖는 자들은 양돈업의 꿈에 집착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감에 넘치는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가깝다는 현실을 실습과 체험으로 무장시켜 장래 어떠한 실의와 고통이 온다하여도 최후까지 끈기있게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자되어 성공하는 묘미를 알게 될 것이다.

2. 동물의 대함을 의무에 쫓겨 일처리하는 일상의 양태에서 벗어나 동물을 나의 몸처럼 아끼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우리남자들은 군생활 경력자들이 많을 것이다. 병영생활 당시 무기다룰때 내몸처럼 사랑할 것을 주장한다. 군인들은 무기가 제2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양돈인의 제2생명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나의 몸처럼 아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3. 업무에 임하여 투철한 책임감, 치밀한 관찰, 정확한 기록, 자상한 보살핌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기자신의 일은 물론 남의 일까지도 척척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남의 일은 커녕 자기 자신의 일조차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전자가

많은 회사는 회사와 사원이 발전하고 후자가 많은 경우 자기와 회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습관화 하여야겠다. 항상 남보다 앞서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찾아 처리하니 즐겁고 또한 일의 능률이 오를 것이다. 습관화는 매우 중요하다. 습관은 선의 습관과 악의 습관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악의 습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양돈인의 노력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바로 직결되기에 주야로 바쁘다. 주간작업은 돈사와 돼지를 관리하고 밤에는 새끼를 받아야 하는 등 항상 긴장된 생활의 연장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은 세사람이상 모였다하면 고스톱을 친다거나 소주 한잔의 핑계가 알콜중독 환자로 되어가는 악습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이다. 악습은 밤중의 강도를 만나는 것과 전쟁의 비극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강도나 전쟁은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면 피할 수도 있지만 습관화는 감각이 마비되어 어물쩍 하는 순간 다시는 찾아 오지 않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꿈은 깨져 버리기 때문에 정신차려야 한다.

4. 내뱉고 근검 절약을 생활화 하자.

가정에서 한푼을 아끼는 생활이 각자의 입신을 그만큼 앞당기는 것과 같이 사료 한 주먹의 허실을 안타까워 하는 심정이 그만큼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번영과 직결됨을 명심하자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법이고 더욱이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삼질한 만큼 웅덩이는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물은 많이 고이기 마련이다. 한세대의 희생없이 다음 세대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 받을 수 없는 것 처럼 오늘날 농축수산물시장개방 압력과 돈육가격 불안 및 각종 질병의 고통이 장차 양돈인에 대한 값진 희생으로 생각하니 기쁨이 아닐수 없다.

사료 한 주먹의 허실을 안타까워하는 절약생활 태도는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과 선배님들의 생활속에서 본을 받자. 그당시 국민소득 약 200불도 못되는 빈곤 시대에서 못살고, 못쓰고, 못입고, 못먹었던 쓰라린 고통을 딛고 오늘날 국민소득 5,000불의 풍요로운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린 주역들의 정신을 이어 받기는 커녕 가난했던 과거가 언제 있었던가 하는 망각자들 처럼 지금은 과소

비, 무질서, 사치풍조가 판을 치고 있으니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들이 앞장서서 불신과 과소비를 추방 시켜야 할 커다란 과제를 자각하여야겠다.

양돈인은 근검 절약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한푼의 저축정신으로 나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양성하니 이것이 곧 국가의 번영과 직결 된다는 내용이 함축된다.

5. 각자 자기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며 노력한다.

개량양돈이론 그리고 각분야의 경험과 실력이 양돈업에 있어서 필수요건이다. 향후 자기 자신의 입신은 자기마음 가짐에 따라 반드시 이룰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인간은 각자 자기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면서 행복된 삶을 추구한다. 행복된 삶을 위하여 돈도 많이 벌어야한다.

돈 버는 방법은 다양각색이지만, 양돈인들의 돈줄은 돼지 오물을 많이 주무른 자에 허락되고 있다. 무진장한 금광이 돈분과 직결된 비밀을 양돈인만이 알고 있지 않은가 착각하는 사람처럼 금맥을 찾아 멀리 떠나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지금 나의 입무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금방의 비밀을 더욱 찾으려 노력하여야 한다. 장래 자기 입신은 지금 하고있는 일속에서 많은 경험과 실습을 통하여 장차 자립으로 발전 시킬 기초가 된다고 굳게 믿어 보자. 밤이 깊으면 밝음이 온다.

현실의 시련과 고통이 즐거운 마음이 지배 되면서 자기가 하는 일마다 기쁨이 되어 하루 일과는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금광의 비밀이 나를 보고 손짓한다는 교훈이다.

6. 자기 자신의 참된 인간성을 생명처럼 아껴 지킨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연과 신용을 천금(千金)보다 중히 여긴다. 돈을 벌기에 앞서 먼저 신용을 쌓으라는 옛 성현들의 말을 잊지말자. 자기 인간성을 생명처럼 아껴 지킨다는 것은 자기에(自己愛)로 집약 할 수

있다. 언젠가 다음과 같은 글을 어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다.

“우리들은 자기애의 덩어리다. 그중거로 자기속에서 나오는 것에는 애정을 갖는다. 콧구멍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코딱지를 후벼 내서는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 보기도하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도 한다. 그런데 남의 그런행동을 보면 「아유 더러워!」 하고 핀잔을 한다. 다 같은 코딱지인데 남의 것은 더럽고 자기 것은 만질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것은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나 자기애의 극치는 자기 외의 이웃은 죽든 살든 알바 없다는 식인 이기심(利己心)이나, 나만 좋으면 남이야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무관심적인 개인주의 사상은 죄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참된 인간성이란 종교의 참사랑으로 비유된다. 사랑은 오랫동안 참고 자기가

익만 추구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우리들은 스스로 실천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야겠다. 모든 사람들은 빛진자들이다. 경영주는 사원, 사원은 경영주에게 빛진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졌고 정치인은 국민, 국민은 정치인에게 빚지고 살아 간다. 그런데 받을 때는 좋고 갚으려고 하면 가까운 것은 빛진자들의 마음이다. 빛은 내것이 아니고 갚아야 할 필연적인 책무이다. 갚으려 할 때 아까워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신용을 떨어뜨리는 악의이다. 우리 양돈인들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바로 잡을수 있는 힘을 길러낼때 천금(千金)보다 더욱 귀한 신용의 소유자가 되도록 힘써야겠다.

7. 조직생활에서 최대의 덕목(德目)은 관용과 화합이다.

타인의 잘못은 쉽게 용서와 이해하고 자기 잘못은 빨리 인정하여 지체없이 용서를 구한다. 상대방 잘못을 타인에게 전하여 여러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함은 조직생활에서는 절대로 피하여야 할 사항이다. 우리들은 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국가간

의 상호협력 없이 발전할 수 없고 자국(自國)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과거의 불편한 관계를 문제삼지 않고 어제의 적성국이 오늘은 협력국으로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처럼 너와나의 관계를 자존심과 사리사욕에 오염되어 타인의 험담이나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불신풍조는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할 수 없고 남들이 하는 일은 몹시 못마땅하게 보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믿고 삶을 영위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너 나 할 것이 없이 모두 모순 덩어리 집합체이다. 따라서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용서 받을수 없다는 교훈을 명심하여 용서와 이해 화합하는 사고로 노사가 단합된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8. 결 론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 협상과 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 농축산인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제 돈육마저 수입정책

으로 변모되고 지난날 농축수산물 출하값이 생산비에도 못미친다고 아우성치던때는 들은 체도 앓다가 이제 겨우 적자나 면하려는 시점에서 쉽게도 수입개방을 단행하는 느낌이 든다. 그럴수록 우리 농축수산인은 더욱 단합하고 분발하여야겠다. 양돈농가가 살아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각종 질병을 퇴치하고 산자수를 늘리며 출하일령을 단축시키는 등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과 맛있는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돈육 소비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당국자들의 근시안적인 수입개방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전체 양돈농가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정확하고 정직한 자료를 갖고 건의하여 시정토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국은 외국 양돈업계와 경쟁할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율도 외국보다 낮게 부과하거나 아예 철폐하는 등 양돈농가 보호육성정책이 마련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제 자기이윤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내 이웃과 공동의 이익을 보장받는 공존공생의 바탕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합리화 경영체제로 비약하는 용기를 길러야한다. ●